

책으로 경험하는 이색직업의 세계

백신 프로그래머, 남성미용사, 항공기 객실장 등 진솔한 생활상 담아

독특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생활을 짚아짚아 수필 형식에 담은 책들이 나왔다.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안철수 지음, 비전) 《귀까지 잘라서 죄송합니다》(박준 지음, 세진기획) 《하늘에서 생긴 해프닝》(이민권 지음, 2000) 등은, 일과 일상 속에서 제각기 체험한 갖가지 애환과 기쁨들을 개성적인 육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지극한 친밀함'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과 열의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저절로 배어나오는 따뜻한 기운이다.

하늘이 내린 성실한 사람

〈젊은 의사 혼자서 이땅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아온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래머이자 단국대 의대 강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안철수씨의 수필집이다. 안씨는 컴퓨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보통명사나 진배없는 '메니아들의 우상'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누구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V3 백신 하나로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안씨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자신이 이룬 일들이 단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일 뿐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계속 일만 해오다 보니 지난 몇년 동안 마음놓고 쉬어본 적이 없다'며, 본래의 전공인 의학공부를 위해 오는 9월 유학을 떠나기 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내 이름을 알고 격려를 보내준 많은 사람들과, 얼굴도 모르면서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고백한다.

이 책에서 드러난 안씨의 모습은 내성적이고 다정하다.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몸을 돌보지 않고 천착해 들어가는 집중력과 고집스러움도 놀랍다.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서둘러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PC통신을 통해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보내는 그의 성품은 과연 '하늘이 내린 성실성'이라 부를 만하다. 게다가 이 책의 뒷표지에 적힌 '국민학생에게도 꼭꼭 답장 써주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보고 국민학생들의 편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역시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 바쁜 일상을 비집고 수많은 답장을 쓰고 있다는 뒷얘기다.

1부 〈안철수의 숨겨둔 이야기들〉에는 에디



최근 이색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박준씨(왼쪽)와 안철수씨.

스의 전기를 읽기도 전 메추리알을 품어 부화시키려다가 옷을 망쳤던 어린 시절로부터, 운동을 못해 혼자서 책을 읽으며 보냈던 성장기, 대학시절 카톨릭 서클에 들어 무료진료 활동을 했던 체험과 지금의 아내가 된 후배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내밀한 면면들이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2부 〈나는 컴퓨터에 빠졌다〉에서는 안씨가 컴퓨터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과정에서부터 처음 컴퓨터를 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충고까지 컴퓨터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상하게 풀어놓고 있으며, 3부 〈해커와의 칠년 전쟁〉에서는 한편에서는 바이러스를, 다른 편에서는 백신을 만들어온 지난 칠년 동안이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무의미한 소모전'이었다고 회고하며 그에 얽힌 크고작은 에피소드들을 차근차근하고 유머러스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무작정 상경에서 최고의 헤어디자이너까지

한편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서울에 오고

싶어서 해남을 탈출해' 무작정 상경, 구두단이·아이스케키 장사·요꼬 기계수리공·고무신 가게 점원·은행 텔렉스 보조 등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남들이 안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미용사 일로 뛰어들어 마침내 일가를 이뤄낸 사람이 있다. 《귀까지 잘라서 죄송합니다》의 저자인 박준씨다.

지금이야 남자 미용사가 그다지 낯설어 보이지 않지만 박씨가 처음 종로의 YMCA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70년대만 해도 '용기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 책에는 박씨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선택한 직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처음 컷트를 배울 무렵에는 버스를 탈 때마다 머릿속으로 모든 여자들의 머리를 잘라보곤 했고, 어느 정도의 웨도에 오른 뒤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가위를 천장으로 내던지고 싶었다는 고백은 인상적이다. 자신의 일에 '전문가의 혼'을 담고 싶다는 그의 의지는 책의 말미에서 미용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같은 길을 걷는 아내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나, 어린 아들딸을 성실하게 키우려는 아버지로서의 면모도 드러나 있다.

비행기에서 만난 다채로운 사람들

아시아항공 객실장으로 7년째 일해오고 있는 저자 이민권씨가 비행기 안에서 겪은 갖가지 삽화들을 한데 모은 책으로 《하늘에서 생긴 해프닝》도 출간됐다. 인기를 끌며 《스포츠조선》에 연재되기도 했던 이 짧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은 가볍고 재치있는 내용 속에 은근스럽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담고 있다.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하는 줄 알고 한 순간 지나온 삶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던 기억이나, 추방된 불법체류자에서부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승객들과 함께 비행하며 겪은 사건들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한 강 기자

